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8.31~2016.9.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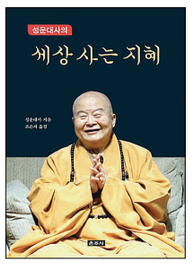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8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주)조계종출판사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인간불교 주창자… 원융한 자비 지혜 제시

성운대사의 세상사는 지혜

성운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 운주사 펴냄
1만 4천원





"불법과 인간, 사회는 하나다"
인간세상 주제 각종 평론 묶어
주제별로 명료히 정리해 놓아

성운대사〈오른쪽 사진〉는 인간불교의 주창자이자 대만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이 책은 일생동안 세간과 출세간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원융한 자비와 지혜로 방향을 제시한 성운대사의 가르침을 엮은 것이다. 불법을 인간세상의 일에 활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두루 미쳐 '타인에게 믿음을, 타인에게 기쁨을, 타인에게 희망을, 타인에게 편리함'을 주려는 인간불교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불교의 제창자, 대만불교의 살아있는 상징, 불교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여 현대사회를 인간정토로 변화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 성운대사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성운대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또 대만불교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운대사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 한국불교 불자들에게,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한국불교는 그간 중국불교, 일본불교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했지만, 대만불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대만불교를 중국불교의 아류로 여겨 낮춰 보거나, 정치문화적으로 대만과 크게 교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중국서, 그리고 화교권서 대만불교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하다. 중국공산당 성립 이후 중국불교계를 이끌던 대다수 고승들은 대만으로 망명했는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불교 또한 되살아나기 시작하자, 대만불교가 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불교의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당연히 인간불교를 제창하며 대만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운대사의 가르침도 중국불교계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현대 중국불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대만불교를 이해해야 하고, 대만불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성운대사이며, 그가 창립한 불광산사와 국제불광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운대사가 대만불교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 누구나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성운대사 자신의 말을 통해 제시한다. 성운대사는 이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이고 물질적 삶의 문제에 대해,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동원해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은 한평생 열심히 수도하는 승려가 되려고 했을 뿐, 수많은 사업을 벌이려는 뜻도 없었고 전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던,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만불교계서 가장 큰 사업을 성취했으며, 가장 저서를 많이 낸 작가인 성운대사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불교계 안팎의 여러 사안들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불법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개한 것을 엮었다.

성운대사가 생각하는 불법의 가장 큰 요체 중 하나는 이른바 인간불교이다. 성운대사가 강조하는 인간불교는 불법과 인간, 불법과 사회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현상과 모순, 그 해결점을 불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고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인간 삶의 근본 동력인 욕망과 그 욕망의 결정체로 탄생한 현대 첨단자본주의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불교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간 삶과 인간적인 사회, 즉 인간정토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불교와 인간, 불교와 사회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불교는 늘 인간의 일상과 사회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가 인간과 사회와 떨어져 자기만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를 쇠퇴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기에 끊임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간불교의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세상의 각종 문제에 대한 성운대사의 평론을 모아 엮어낸 것이다. 여기서는 전체를 인간사(人間事), 비고사(悲苦事), 대중사(大衆事), 담심사(談心事), 지혜사(智慧事), 불가사(佛家事), 양안사(兩岸事), 대천사(大千事) 등 총 8부로 나눠 불교의 이치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성운대사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인간세상의 일과 이치에 활용함으로써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게 하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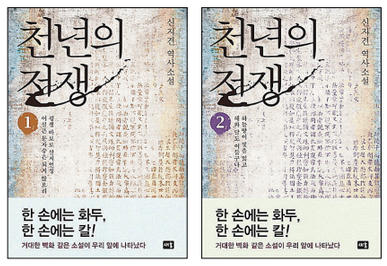
그리고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글'이란 난을 마련해 그 주제를 명료히 정리하고 있으며, 큰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 책을 편집한 고희균 교수의 회향글이 들어가 있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대만불교와 중국불교, 나아가 세계불교에 인간불교란 이름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운대사는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으로 이루어낸 문학적 필력으로 현실사회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감상과 견해를 끊임없이 밝혀왔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우리 한국의 불자와 독자들도 불교의 가르침이 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과 사회를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깊은 산속의 '화두' 끌어낸 역사소설

천년의 전쟁1, 2

신지견 지음 | 새움출판사 펴냄 | 각 권 1만 3800원



16세기 조선, 그리고 유 · 불 · 선 최후의 전쟁

유 · 불 · 선 사이에 천년에 걸친 전쟁이 있었다. 우리의 자생적 사상이던 선도(仙道)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에 주도권을 내주었고, 고려 때 전성기를 누렸던 불교는 다시 조선조의 성리학에 패권을 빼앗겼다. 오랜 전통을 지닌 불교와 선도는 유교의 폭압 속에서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산중으로 숨어들었으되 맥이 끊길 수는 없다. 16세기 조선, 젊은 선승들을 중심으로 사사(沙社)라 불리는 전국 규모의 비밀 결사가 은밀하게 조직된다. 여기에 잠적하여 오랫동안 내공으로 실력을 길러온 선도의 무리가 합세한다.

그리고 왕의 기운을 받은 여신이란 인물이 태어난다. 그가 바로 후에 대선사 서산(西山)이라 불리게 되는 휴정(1520~1604)이다. 그는 오랜 수행을 거쳐 불교와 도교의 젊은 영웅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성리학적 이념으로 국가의 패권을 틀어쥐고 있던 유교와 문명사적 전쟁을 벌인다. 천년에 걸친 유 · 불 · 선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 전쟁은 16세기 말에 벌어지는 임진왜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진입한다. 뜻하지 않은 외침으로 조선왕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그때, 휴정은 성리학이 하천민으로 만들어놓은 승려들을 승군으로 결집해 조선왕조의 왕권을 잇게 한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치지 않는 종교 간의 다툼을 그리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이 언제든 불러올 수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을 역동적인 필치로 되살려낸다. 소설 〈천년의 전쟁〉은 조선 중기의 서산이란 당대의 큰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거대한 역사소설인 것이다.

수호지 연상시키는 젊은 영웅들 활약

책 속의 무대가 되는 16세기 조선의 시 · 공간은 천년을 이어온 불교가 험난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시기다. 극악한 위기의 상황은 걸출한 영웅들을 탄생시킨다. 소설에는 묘향, 구월, 금강, 장수, 계룡, 가야, 두륜, 영취산 등 전국 각지서 활동하는 젊은 선승들이 대거 등장한다. 궁궐에 잠입해 왕후의 신위판을 훔쳐낼 정도의 협기를 가진 법준, 전국을 돌며 사사들을 집결해내는 지혜와 용맹의 자환,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의 괴력을 가진 하철굴암 마하까지 무예와 수행을 두루 갖춘 선승들이 그들이다.

여기에 천년을 이어온 도교의 전통적 내단(內丹)을 수련해 신선의 경지에 오른 운선선인, 그의 어린 제자로 축지와 무예에 능한 풍회, 그리고 미모와 무예를 겸비한 신혜, 자옥, 여윤 등 비구니들까지, 절멸의 위기에 몰린 정신사의 두 맥(脈)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영웅들이 대거 출현한다. 이들은 조선의 산하를 은밀하되 역동적으로 활보하며 유교의 폭압에 맞선 훗날의 거사를 도모한다. 가히, 양산박(梁山泊)을 중심으로 모여, 조정과 관료들의 부패와 맞서 봉기했던 '수호지'의 영웅들을 떠오르게 한다.

선(禪)의 흐름을 읽는 지적 즐거움

〈천년의 전쟁〉은 그러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젊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는다. 소설의 큰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은 서산의 행적이다. 서산은 주로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의 전란 속에서 승병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승병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불교의 종지를 압축해 담은 〈선가귀감〉을 쓴 조선 선불교의 큰 인물이기도 하다.

서산 휴정선사의 삶 그린 구도역정 소설화
유불선 용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것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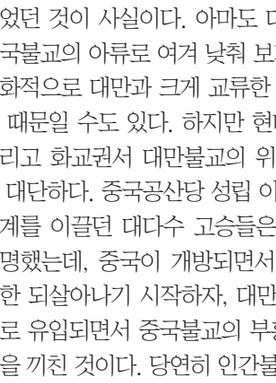
〈천년의 전쟁〉은 정심선사로부터 지엄, 영관을 거쳐 서산으로 이어지는 조선 중기 선불교의 흐름을 그 어떤 불교 이론서보다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산 중의 외떨어진 암자에서 이뤄지는 선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민중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적(知的) 탐구이기도 하다. 즉 〈천년의 전쟁〉은 고도의 정신적 깊이를 가진 선승들이, 어떻게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포함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느냐에 대한 거대한 스케일의 천착인 것이다.

작가의 평생 집념이 담긴 역사 소설

〈천년의 전쟁〉은 작가 신지견이 집필 투혼을 불사르며, 평생에 걸친 불교와 우리 정신사에 대한 공부를 일거에 쏟아낸 소설이다. 작가의 평생 지적 여정을 담아낸 금세기 최고의 역사소설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작품일 것이다. 그는 〈천년의 전쟁〉 집필을 위해 〈전등록〉과 〈선문염송〉 등 선불교의 경전들 속을 헤맸으며, 서산과 조선 선승들의 발걸음을 좇아 전국의 산하를 유랑하듯 답사했다. 그리고 해남의 대흥사 절집에 7년을 눌러 앉아 자신의 필생 역작이 될 〈천년의 전쟁〉을 써내려갔다. 신지견은 최근 서산 휴정이 저술한 〈선가귀감〉과 〈청허당집〉을 새롭게 해석하고 해설했으며, 〈금강경〉을 현대어로 재해석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0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화엄경5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